

이 상 구 (성균관대학교)

한국의 전통수학과 근대수학의 발전 및 일제강점기

본 연구에서는 조선 수학의 전통과 극동아시아 수학의 전통을 비교하고, 근대 수학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국내 유일의 고등교육기관인 성균관의 역할과 일제하의 수학교육 및 해방 직후의 국내 수학교육 환경에 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이를 통하여 근대수학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가졌던 우리의 노력과 장애물을 분석하고 미래를 생각한다.

1. 조선 말과 대한제국의 수학교육
2. 개화기의 수학과 일제 강점기 수학교육의 한계
3. 한국 현대 수학의 선구자 최규동과 장기원 그리고 이임학
4. 한국 수학의 희망

주제어: 근대수학, 일제강점기, 성균관, 대학수학교육

김 성 숙 (배재대학교)

역사적 관점으로 본 메소포타미아 수학

메소포타미아의 설형문자는 이집트의 상형문자보다 먼저 사용되기 시작하였기에 메소포타미아 수학의 역사가 인류 최초의 수학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은 메소포타미아 수학의 역사를 인류 최초의 수학의 역사로 본다. 이 발표의 목적은 메소포타미아 수학이 발달하게 된 환경과 사회적 배경에 대한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독자들이 사회와 문명의 발달 가운데에는 항상 수학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 역사적으로 수학은 항상 사회의 필요에 의하여 발달해 왔기에 역사적 관점을 연구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현재에도 우리 시대에 행해지고 있는 많은 수학 연구가 우리사회의 발전에 큰 역할을 부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